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달라이라마를 가까이서 뵈며

최영숙 (경남 창원시 남양동)

2001년 12월은 달라이라마께서 처음으로 한국불교신도들을 위해 관정을 베푸신 달이다. 관정이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진언을 외우며, 내 자성신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되는 것을 느끼면서 보살계를 받는 것이라 한다.

나는 그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델리에서 승용차로 12시간을 달려 다람살라에 도착했다. 다람살라, 두 번째 가보는 곳이다. 인도에서의 첫 여행지가 여기였다. 달라이라마가 계신 왕궁이 있는 곳은 메트로 관저이다. 아마 제일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했다.

다람살라는 티베트인들이 중국에게 주권을 뺏기고 인도로 망명을 와서 살고 있는 곳이다.

티베트인들은 한 가정마다 스님을 한분씩 출가시키기 때문에 다람살라 그 자체가 수행의 장소로 여겨질 정도로 자춧빛 가사를 걸친 스님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염주를 목에 걸거나 손에 쥐고 있는 모습, 항상 염불을 중언중언 외우고 있는 모습들에서 작은 불교왕국이란 느낌이 든다. 사방을 두르고 있는 산꼭대기엔 하얀 난간선이 덮여 있고, 새벽이면 개들이 울러다녀서 찾아대는 소리도 우리의 불성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로 들리니 가히 종교적인 곳이라 생각된다.

그 맑고 맑은 기운을 받으며, 우린 달라이라마께서 직접 관정을 주시는 예비 관정식을 받기 위해 절로 향했다. 1997년에도

난 다람살라에 왔다. 많은 고생 끝에 도착한 이곳에서 난 그 분이 다른 나라로 설법하기 위해 차를 타고 떠나시는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망연자실 서 있으니 달라이라마를 뵈기 위해 뒤편에서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외국인 부부가 말을 걸었다. 그 때 그 부인은 달라이라마를 면발치에서 보고는 환희심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난 그 때까지도 달라이라마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달라이라마의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토록 환희심에 젖게 했을까 궁금했다.

드디어 4년만에 나는 그 분을 뵈러 가는 길이다. '살아있는 부처' 달라이라마를.

부처님께 올릴 하얀 비단을 손에 받쳐 들고 가는 내 가슴은 그때와 같은 공명증으로 뛰었다. 절로 들어가기에 앞서 테라를 예방



그림 · 문병성

관정식에 들어가기 전 좋은 꿈을 꾸라는 의미에서 내린 단 다. 긴 것은 침대 밑, 짧은 것은 베게 밑에 놓고 잠을 자라고 했다. 난 어떤 좋은 꿈을 꾸게 될까 하는 설레임에 밤새 신경이 곤두 서 선 잠을 자야만 했다. 무엇이든 절로 되어야 좋은 것이지, 나처럼 욕심이 많으면 꿈도 제대로 꿀 수가 없나보다.

질문에 상세하고도, 친절히 답변해주셨다.

티베트에 자주 가시는 분이, 티베트국민들은 달라이라마를 뵈는 게 소원이고, 항상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드린다면 국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은 무엇이나고 여쭙었다. 달라이라마는 "지금은 중국의 냉혹한 독재에 힘들겠지만, 티베트 국민은 티베트만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적을 위해서도 걱정하며 기도를 하라"고 전했다. 대승의 나아갈 길도 설명했다.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죽음의 두려움'에 관해 물어보자 '죽음이란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긴 여정에 있어 인생은 하나의 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타종교에 대해서 근기에 맞게 선택된 종교를 존경하는 마음도 가져야한다고 했다.

인간의 의식세계에 대해서 말하며, 꿈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중승신 상태에서 나를 뒤를 수 있다며, '참나를 찾기 위해 제법무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정·혜를 닦아 바르게 정진하라'고 했다.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익 되도록 정진에 게으르지 말며, 보리심, 공성, 지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심을 내어한다고 가르쳤다. 다람살라에서 우리 일행은 지극히 평화로운 마음의 화신이 되어 업과 번뇌, 장애를 맑혀서 항상 보리심에 젖어 있기를 바라며 떠나왔다.

그윽하게 풍겨 나오는 당신의 향기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윽한 눈빛 속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무(無)로 돌아가며 당신의 환한 미소에 모든 중생들은 살이 썩습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집이 많아 어찌가 무거우시에도 그 짐을 마다않고 다 지시는 분이시여.

부처님! 제 마음 하나하나 모두 당신께 바칩니다.

그 지혜, 그 자비 모두 구족하신 분, 부처를 이룰 때까지 귀의하옵나이다.

나무 아미타불(길)

관정식에서 관음보살의 자비 느껴... 평생 이타행 발원

하기 위한 안전 검사를 받았다. 마침내 절로 들어선 순간, 경내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세계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티베트인들, 스님들이 중간에 우리들 자리를 남겨둔 채 뒤편 둘러앉아 각자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자리가 다 갖추

어지자 달라이라마께서 나오셔서 법단에 앉으셨다.

사건으로만, TV로만 봤던 분을 직접 만나는 순간, 아! 난...활활을 잊었다. 나도 모르게 내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 성인의 모습은 저렇구나...

온 몸에서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자비심의 빛! 난 그만 눈물을 팽팡 쏟아내기 시작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분 앞에 있다는 환희심으로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니, 모든 번뇌가 다 씻겨 나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상태로 난 그 분을 만나고 있었다.

장장 5시간에 걸쳐 예비관정식이 치러졌다. 달라이라마는 간단히 인사를 끝내고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불경을 외우고, 법문을 하고, 그 법문을 청정 스님과 설오 스님이 통역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국 스님이 통역을 하면 우리들이 잘 알

아들인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던 그 분,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동안 모든 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법을 만나 열반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애절함이 가슴에 와 닿았다.

자비롭고 순박한 눈길로 지극히 굽어 살펴보는 그 모습은 관세음보살 그 자체로, 힘들면 허품을 크게 하며, 아무런 결핍이 없이, 아무런 꾸밈도 없이 천진불 그 자체로 우릴 반겨주셨다.

티베트불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예를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의미로 갈마보병의 물을 들린다. 우리 일행은 왼손바닥에 물을 조금 받아 오른손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입을 몇 번 씻고, 귀, 눈, 코, 손, 배꼽, 머리에 바르고 물을 세 번 마신 후 입을 두 번 씻었다.

중간에 뜨거운 우윳빛 차를 돌리기도 했다. 기도가 끝나고 우리에게 김상조(갈대) 긴 것과 짧은 것 두 개가 주어졌다. 내일 본

걸쳐 본 관정식이 시작됐다. 우린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생각하며 그 분이 이끄는 대로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명상을 시작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 때, 천신들이 씻은 것처럼 청정한 하늘의 물로 그와 같이 저도 씻어주소서. '관세음'이라 이름 불리는 항상 자비하심에 질 울리며, 모든 여래시여! 저에게 나누시어 관정을 주옵소서!

그렇게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느끼며,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평안케 하시는 그 분께 내가 쌓은 조그만 복일지라도 모두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회향했다. 관정식이 끝나고 보리심 씨앗과 붉은 색 명주실이 주어졌다. 나는 한동안 팔찌처럼 묶고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그분의 가르침과 자비심, 순화한 미소를 떠올리며 행복해했다.

오후에 왕궁에서 달라이라마를 뵈고 질의응답할 기회가 주어졌다. 많은 분들이 평소 애 궁금해 하던 점들을 들었는데, 모든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포 담이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배관난방이 아닌 선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사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이제 기름의 1/3 가격으로 난방 끝!

이벤트 기간 설치 의뢰시 **중전시공비의 10% 할인혜택**

- 특별보급기간: 2005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 특별 이벤트: 설치비 10% D/C 원적외선 방식 2개 증정 (예불시 사용하세요)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keh21.com"

■ 설치의뢰 080-017-0100 ■ 상담전화 043)221-6006

| 구분         | 심야전력(축열식) | 전기판넬     | 도시가스    | 보일러등유    | LPG      | 한국전자난방     |
|------------|-----------|----------|---------|----------|----------|------------|
| 가격(원)      | 31,240원   | 715원     | 500원(㎡) | 650원(L)  | 950원(kg) | 7150원(kwh) |
| 연료소비량(월)   | 192(kwh)  | 167(kwh) | 13(㎡)   | 17(L)    | 12(kg)   | 43.2(kwh)  |
| 난방비(평당)    | 5,998원    | 11,941원  | 6,500원  | 11,050원  | 11,400원  | 3,088원     |
| 단가(지수)     | 194       | 386      | 210     | 358      | 369      | 100        |
| 10월 난방비(원) | 59,980원   | 119,410원 | 65,000원 | 110,500원 | 114,000원 | 30,880원    |

| 시료명  | 음이온(on/cc) | 발급번호     | 방사율   | 방사에너지                  | 발급번호    |
|------|------------|----------|-------|------------------------|---------|
| 발열필름 | 158        | kfim-236 | 90.3% | 3.64 x 10 <sup>4</sup> | kfi-403 |

원적외선 시험 성적서: 한국원적외선융합평가연구원 시험결과